

정답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③	08 ⑤	09 ⑤	10 ⑤
	11 ③	12 ②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①	18 ④	19 ④	20 ④
	21 ③	22 ④	23 ①	24 ③	25 ③	26 ⑤	27 ⑤	28 ②	29 ③	30 ④
	31 ②	32 ⑤	33 ③	34 ⑤	35 ①	36 ②	37 ②	38 ①	39 ①	40 ④
	41 ⑤	42 ②	43 ⑤	44 ①	45 ②	46 ②	47 ⑤	48 ①	49 ②	50 ④

## 출제 경향

### ◆ 듣 기

듣기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오미자차와 관련된 학생의 발표, 요트의 진행과 관련된 강의, 발표 시 유의할 점에 대한 대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담 등으로 듣기 제시문이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들려주는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에 따라 선지의 내용이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가를 확인만 해 주면 답을 찾기에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2번은 EBS 독해 제시문을 활용한 문제였다. EBS 교재 활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듣기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 ◆ 쓰 기

이번 모의평가 쓰기 영역에서는 내용 연상하기,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수정·상세화하기, 글쓰기 계획하기,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고쳐 쓰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중 내용 연상하기에서 십자말풀이를 활용하여 내용을 연상하도록 한 점이 참신했다. 이 외 문제 유형들은 기존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난이도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물론 7번과 8번은 자료 수집, 내용 선정 등의 글쓰기 과정 전반을 다룬 복합적인 문항 유형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지만 이 또한 기존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었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도 쓰기 영역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 어휘 · 어법

어휘 문제의 경우, <보기>를 통해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의미를 제시한 후, 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동, 사동의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사용한 표현을 찾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어법 문제의 경우 <보기>에서 ‘어미’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다. 이는 어휘, 어법에 관한 암기된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언어 활용 능력’을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 문 학

### • 현대시

김춘수의 '강우'와 김종길의 '성탄제', 이성복의 '서해'가 함께 출제되었으며, 김춘수의 '강우'는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었다. 김종길의 '성탄제'는 비교적 학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었으며, 이성복의 '서해'가 다소 생소한 작품이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현대 소설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 출제되었다. 이 작품은 EBS 수능특강에 출제된 작품으로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EBS 교재와 제시문이 일정 부분(중략 이후) 겹치게 출제되었다. 향후 현대 소설과 관련하여 EBS 교재의 응용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 장르 복합

장르 복합 영역에서 시조, 가사, 수필이 함께 묶여 출제되었다. 사실시조인 '두터비 파리를 물고'와 가사인 허전의 '고공가'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지만, 수필인 이옥의 '어부'는 비교적 생소한 작품이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작품이다. 따라서 장르 복합은 전형적이고 익숙한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문항 면에서 보자면 최상의 난이도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세부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고루 출제되었다.

### •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은 낙선재본 영웅 소설인 '낙성비룡'이 출제됐는데, 제시문은 다소 낯설었으나 내용 이해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문제 또한 대체로 평이했다. 48번 문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소대성전'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후 '낙성비룡'과 직접 비교하는 문제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영웅 소설의 일대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작품에 적용시키는 문제로서, 이 또한 전형적인 문항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 독 해

### • 인문

그동안 출제되던 인문 영역에서는 대체로 역사나 철학과 관련하여 특정 개념이나 대상과 관련된 글이 주로 출제되었던데 반해,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학문의 주요 사고 과정인 '추론'에 대해 설명한 글이 출제되었다. 이는 수능이 요구하는 추론적 사고의 의미와 가치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시문이라 하겠다. 제시문은 추론의 여러 종류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추론적 사고가 학문 과정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 과학

2008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신기루' 제시문처럼 이번 과학 제시문에서도 '사막'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상을 소개하고, 이러한 자연 현상이 생겨나는 원리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이 출제되었다. 최근 과학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나열하는 만큼 그 정보를 관련 내용별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예술

‘회화에서의 사실성 개념’에 관한 글이 출제되었다. 인상주의, 입체주의와 같은 문예 사조를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곰브리치와 굿맨’의 미학 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제시문이라 다소 독해의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 구성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 사회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에 대한 통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유명인이 중복하여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 광고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평이한 내용으로 글의 세부적 이해가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 하겠다.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최신 기술을 소재로, 그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제시문을 주로 출제한다. 이번 모의평가에도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연비를 결정하는 ‘엔진의 동력 생산’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제시되었다.

• 언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이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인문 또는 언어 제시문에서 옛 문헌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한글 창제 후 나타난 우리나라 문자 생활사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내용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제시문이나 문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단지 45번이 한글과 알파벳을 혼용하는 상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바를 차분히 따라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 ❑ 출제 문항 분석 ❑

### ❖ 틀 기

1번은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찾으라는 정보의 사실적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2번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강의의 세부 정보에 대한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강의의 세부 정보가 선지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두 대상이나 요소, 부분 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 정보를 바꾸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번 문제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통 말이나 글에서 핵심 정보는 뒤쪽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보량이 많다. 그와 같은 점에 주목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4번은 추론하기 문제이다. ‘목련동’ 지역에서 미흡한 정책 내용을 정책 종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5번은 진행자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방송이 나오기 전 문제를 읽고,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방송을 들어야 할지 판단한 후 접근해야 함을 보여 주는 문제이다.

## ❖ 쓰기

9번은 조건에 따라 표현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로 조건 자체가 크게 까다로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10번은 해외 탐방 참가자 공모를 보고 작성한 신청서의 일부를 고쳐 쓴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선지의 내용은 기존에 출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선지에서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해결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 ❖ 어휘 · 어법

11번은 <보기>를 통해 동음이의어의 예와 각각의 의미를 제시한 후, 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피동, 사동의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음이의어의 의미들을 구분하고, 선지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례가 <보기>의 설명 중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2번은 <보기>에서 '어미'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을 분석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정보들이 <보기>의 사례에 부합되는지를 따지는 문제라 하겠다.

## ❖ 문 학

### • 현대시

19번 공통점 찾기, 20번 비교 감상, 21번 시구의 이해, 22번 이해와 감상으로 이어지는 문항 구성은 시문학 세트의 일반적 구성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22번 문항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할 수 있다.

### • 현대 소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보여 주는 예이다. 28번의 경우 EBS 수능특강의 5번 문제와 문제의 식을 공유하며, 30번 역시 EBS 수능특강의 8번 문제와 유사한 관점에서 출제되었다. 선지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어에 대한 평소의 학습이 중요시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 • 장르 복합

39번은 시가 영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로 세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정서, 태도, 표현, 이미지 등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익숙한 작품에 선지를 먼저 적용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풀이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40번은 두 작품의 소재나 시어의 의미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작품을 세 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시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문항을 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41번은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작품을 이해할 때 시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대응시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2번은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보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이나 시어 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문항을 해결하면 된다. <보기>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데 있으므로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선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43번은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핵심 화제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이를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소문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결국은 글에서 필자가 말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 고전 소설

47번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소설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정답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8번은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작품에서 찾아내는 문제로 조금 참신한 유형이었지만, 작품과 작품을 직접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려 한다면 정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49번은 인물의 말하기 양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 유형으로 부분적인 내용이나 특정 어구에 주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정답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선지의 근거를 확보하되 인물이 그렇게 말한 의도를 파악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 유형이다.

50번은 고전 소설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한자 성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되, 작품의 내용과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 독 해

• 인문

13번은 제시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 정리하고 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각 자료(도식)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도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조건과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시문의 관련 내용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14번은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이는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라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기>에 주어진 상황과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에서 설명한 각각의 개념이나 상황에 알맞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과학

15번은 제시문에 나열된 정보들을 이해하거나 또는 이를 토대로 올바른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선지에 등장하는 개별 정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를 반드시 제시문에서 확인하고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6번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의 검증 방법을 확인하는 유형이다. 먼저 문제

에 등장하는 ‘검증 방법’이 바로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중심 화제임을 파악하고, 〈보기〉에 설명된 검증 방법 중 어떤 것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7번은 제시문의 정보를 종합하여 구절의 의미 및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밑줄 친 구절과 관련된 정보가 글의 여러 단락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8번은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으로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술

27번 어휘 문제는 문법적 직관을 요하는 문제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평소에 정리해 두며 준비해야 한다.

• 사회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을 소재로 한 사회 영역의 제시문이 출제되었고 논지 전개 방식, 글의 세부적 이해, 비판적 읽기, 단어의 문맥적 의미 추론 등의 유형이 출제되었다. 단락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34번이 비교적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대체로 36번처럼 글에서 설명한 세부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나, 37번과 38번처럼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 언어

44번은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언어 제시문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으나, 다행히 제시문의 내용 이해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5번은 제시문에 언급된 원리를 토대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로 제시문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여기에 〈보기〉에서는 한글과 알파벳 간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판단된다.

46번은 ㉠의 사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발문을 통해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 왔다면 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학생의 경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으리라 본다.

## 📌 학습 대책 📌

### ❖ 듣 기

듣기는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방송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독해 제시문처럼 다시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문제와 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문제의 요구에 맞게 선지의 적절성을 검토하면서 답을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방송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듣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 문제의 듣기 자료로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쓰 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전체적인 문제의 구성 자체는 기존의 문제 유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들어 쓰기 유형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에 해당되는 선지를 만들기보다는, 제시한 문제를 차분하게 논리적인 생각으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각 쓰기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려운 문제만 고집해서 풀려고 해서 안 된다. 문제가 쉽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출을 반드시 풀어 보고 선지 하나씩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 ❖ 어휘 · 어법

최근 어휘, 어법 문제들을 살펴보면, 형태소, 조사, 어미, 품사, 문장 등 언어 영역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들이 언어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언어 활용 능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교과서나 기본 교재를 통해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소한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어휘, 어법이 더 이상 어려운 영역은 아닐 것이다.

### ❖ 문 학

#### • 현대시

EBS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진 만큼 EBS 교재에 출제된 작품의 숙지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맞춰 기본에 충실한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 • 현대 소설

EBS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진 만큼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인물의 시각’처럼 착각하기 쉬운 핵심 개념 역시 평소에 정리해 둔다면 문제의 형태가 다소 바뀌더라도 수능에 무리 없이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장르 복합

어렵고 난해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도전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충실한 감상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 경향으로 보아 작품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능력을 길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작품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감으로써 현재의 문제 경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고전 소설

2007~2009학년도 수능에서 고전 소설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다가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이번 모의평가 또한 낮은 작품인 것에 비해 문제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낮은 작품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낮은 소설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 제시된 제시문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인물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익히고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 연습을 병행해 나간다면 고전 소설에서 그리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 ❖ 독 해

- 인문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인문 영역에서도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나 핵심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글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나 설명들을 토대로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유사한 사례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과학

출제 경향에서도 밝혔듯이 과학 제시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많은 정보들을 글의 설명 방식이나 추론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거나 또는 글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각각 구분하고 관련 정보끼리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은 단순히 눈으로 글을 따라가며 읽고 기억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항상 주어진 정보들을 체계적이면서도 간략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수많은 정보가 나열된 제시문에서 빠르게 찾는 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예술

비교적 긴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긴 제시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어 주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사회

단락별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내용 일치나 글의 세부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론 근거를 찾는 문제 역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독해력을 키우는 데 공부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끝으로 ‘단어의 문맥적 의미’에 관한 문제는 문맥상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았을 때 대체 가능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는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낯선 최신 기술의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 기술을 설명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접해 보면서 그 글에 담긴 원리나 과정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독해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기술 영역은 짧은 분량의 글에 비해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으므로,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 주어진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다루고자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주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언어

최근 인문, 언어 영역에서는 옛 문헌과 관련된 제시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학생의 경우 옛 문헌과 관련된 제시문과 문제가 있다면 따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 보고 제시문의 내용을 정독하며 이해하려는 훈련을 해 보자. 하지만 언어 영역의 성격상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배경 지식을 기르려는 노력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정보량이 많은 제시문에서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기억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 해설

### [01~05] (듣기)

#### 01 사실적 정보 확인

학생의 발표문에 들어 있는 정보는 오미자차의 효능, 오미자차 만드는 방법, ‘생맥산’의 명칭 유래와 만드는 방법만 있을 뿐, 오미자차를 마실 때의 유의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① 오미자차가 갈증 해소, 폐의 기운 증강, 혈액 순환, 각성 효과(졸음 쫓기)에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다.
- ② 가루로 타마시기, 말린 오미자 달여 먹기, 원액을 만들었다 타마시기 등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다.
- ④ 맥이 빠졌을 때 먹으면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⑤ 물,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적당량 넣고 물이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달인다고 방법이 나와 있다.

#### 02 청자의 반응의 적절성(세부 정보 확인하기)

‘지브세일’의 앞쪽을 지나가는 바람 속도가 빠르고, 뒤쪽은 느리다. ③은 앞쪽과 뒤쪽 상태를 바꿔 놓았다.

### 03 핵심 정보 파악하기

대화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발표 수업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중 선생님이 가장 비중 있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선생님의 발표 준비에 대한 조언은 ‘발표 순서 짜기’→‘발표 연습 하기’→‘내용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내용에 대한 자신감’에 중점을 두어 학생에게 조언하고 있다.

### 04 추론하기

김 교수에 따르면 목련동에서는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위한 정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시행되었지만 지역 사회와 거주 외국인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장미동에서는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 05 진행자 역할의 적절성 판단

‘청취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란 진행자의 발화에서 청취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점을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럼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씀이신가요?’와 같은 질문은 청취자들이 목련동 정책이 실패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전제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06~10] (쓰기)

### 06 연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십자말풀이에서 ‘책 읽기’에 대한 내용을 떠올릴 때의 착안점에 유의해야 한다. 착안점은 ‘십자말풀이를 ‘도서 목록’에, ‘한 단어’를 ‘책 한 권’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는 내용은 ‘같은 분량의 책을 여러 권 읽는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㉔처럼 한 권의 책을 일정하게 나누어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연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7 자료 활용을 통한 개요 수정 및 보완

자료 B에 따르면 습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60% 가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료 B는 습지에 대한 인식만을 보여 주는 통계일 뿐이다. ㉓처럼 습지 보전이 장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료 A는 습지를 둘러싸고 농부와 어부의 이해관계가 대립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장애 요인 항목에 ‘이해관계의 대립’이란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A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자료 B를 통해 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란 항목을 상세화하는 데 두 자료가 모두 활용될 수 있다.  
④ 자료 C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냈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2-나 습지의 정책 보완’ 항목을 상세화할 수 있다.  
⑤ 자료 A는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C는 습지 보존 사례에 관한 자료이다. 둘을 활용하여 ‘갈등의 조정 및 해소 노력’ 항목을 상세화할 수 있다.

## 08 글쓰기 계획하기

글의 주제는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이다. 그런데 ⑤는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 소재 및 주소 연결’을 추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므로 주제와 맞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료 수집>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고 물품 교환 사이트 목록’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내용 선정> 중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실태와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내용 선정> 중 활성화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오프라인에서 ‘일일 시장 개설 제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조직>에서 정보 제공 및 설득, 동참 유도란 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글 마지막에 ‘동참 제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9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보기>는 표현적인 부분에서 ‘비유법’과 ‘생략법’을 활용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⑤의 ‘너희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 생각날 거야’에서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고 있고, 마지막 행에서는 비유법(‘졸업이 흩어지는 구름처럼’)과 생략법(‘졸업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길’)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생략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 ② 주어진 조건이 모두 활용되지 않았다.
- ③ 비유법이 활용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추억’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 ④ 비유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 10 고쳐 쓰기

뒤에 이어진 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은 ‘조사했고’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앞 절은 글쓴이가 잉카 문명에 대한 자료와 문헌을 조사했다는 내용이고, 뒷 절은 글쓴이가 심화 학습할 주제와 탐구 계획을 정해 놓았다는 내용이다. 앞 절과 뒷 절의 내용이 대등하므로, 앞 절과 뒷 절 사이에 오는 접속어 또한 대등, 병렬을 나타내는 접속어가 와야 한다. 따라서 앞 절과 뒷 절 간의 관계가 인과 관계임을 보여 주는 ‘조사했으므로(조사했다. 그러므로)’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했고’로 바꿔주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글의 소제목(‘2. 신청 동기와 사전 준비 정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② ㉡의 ‘잉카 문명에 대한 제 관심은 세계사 수업을 통해 싹텃’다는 내용은 둘째 단락 첫째 문장의 ‘공부하는 과정에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을 둘째 단락의 처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매력(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과 ‘매료(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함.)’는 의미가 중복된다.
- ④ ㉢의 주어는 ‘제가’이므로 ㉢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11~12] (어휘 · 어법)

### 11 어휘의 의미 파악 및 사례에의 적용

③의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에서 밑줄 친 ‘부르다’는 아이들의 배

를 채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보기>의 ‘먹은 것이 많아 꼭 찬 느낌이 들다’의 의미를 활용한 표현으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은 ‘부르다<sup>1</sup>-㉒’의 피동(㉔)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②는 ‘부르다<sup>1</sup>-㉑’의 피동(㉔)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④는 ‘붙다<sup>2</sup>’의 사동(㉔)에 해당한다.  
 ⑤는 ‘붙다<sup>1</sup>’의 사동(㉔)에 해당한다.

## 12 구체적 정보를 통한 어법(어미)의 이해

②의 ‘-르래’는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출처 중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의 ‘-대는’-다고 해의 줄임말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③의 ‘-네’는 철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정보와 함께 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와 ⑤의 ‘-을걸과’-겠은 모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3~14] (인문)

### 13 사실적 이해 및 시각 자료에의 적용

주어진 도식에 맞추어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도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시문의 첫째 단락에서 설명한 ‘타당한 추론’에 해당한다. 또, 도식을 통해 ㉡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둘째 단락에서 설명한 ‘개연성이 높은 추론’임을 알 수 있다. ㉢의 경우는 타당한 추론이면서 동시에 전제가 실제로 참인 경우에 해당하는 추론이므로 ‘건전한 추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1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시문에서는 추론이 타당하면서 동시에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인 추론을 건전한 추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①의 경우, 전제가 실제로 참이라는 조건만을 가지고 남자의 추론을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또, <보기>를 통해 남자의 추론에서 타당성을 살펴봤을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자의 추론은 건전한 추론이 아닌 개연성이 있는 추론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여자의 말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면서 동시에 참일 가능성도 낮아지므로 개연성이 낮은 추론이다.  
 ③ 추론의 타당성은 결론이 반드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여자는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이 아닐 때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라 구분한다. 그러므로 남자의 추론과 ‘추론 2’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15~18] (과학)

15 세부 정보의 확인

제시문의 첫째 단락을 통해 대부분의 사막은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마지막 단락을 통해 호주(남반구)의 사막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막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 ① 넷째, 다섯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셋째 단락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위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첫째 단락에서 중위도 사막의 특징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②가 적절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 ③ 셋째 단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⑤ 셋째 단락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한 진술이다.

16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적용

[A]를 살펴보면,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과 ㉠의 가설이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과 퇴적 지층에 고지자기 측정 결과를 통해 ㉠의 가설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17 추론적 이해

전후 문맥을 통해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한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위도’ 지역의 사막 형성의 원인을 설명한 둘째 단락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기 대 순환’이다.

18 어휘의 이해.

㉠의 ‘서식’은 ‘동물이 깃들여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길러서 번식하게 함’의 의미로 적절한 용어는 ‘양식[養殖]’이다.

[19~22] (현대시) (가) 김춘수, ‘강우(降雨)’ (나)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다) 이성복, ‘서해’

**[작품 해설]**

(가) 김춘수, ‘강우(降雨)’

해제 : 이 작품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매우 현장감 있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아내의 부재가 화자에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화자는 일상의 곳곳에서 아내를 찾는다. 그러나 화자의 인식과는 달리 현실은 아내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제 :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나)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해제 : 이 작품은 성탄절 무렵 내리는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한 시이다. 전 10연 중에서 제 7연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부(1-6연)에 화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거]을, 후반부(7-10연)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으로서의 삶[현재]을 대칭적으로 조직[대조]하였다.

주제 :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계승의 참 뜻.

(다) 이성복, '서해'

해제 : 이 작품은 '당신'의 부재 속에서 부재의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당신'의 '존재'를 지키고자하는 화자의 뜻을 담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바다'는 당신이 깨실지도 모르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남겨 둬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그리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제 : 대상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19 공통점 찾기

세 편의 시 모두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뭉뚱한 냄새'와 같은 후각적 심상, '내 목소리, 메아리'와 같은 청각적 심상,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와 같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과 같은 촉각적 심상, '산수유 붉은 알알이'와 같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도 시각적 심상을 통해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 작품 비교하기

(나)에서도 '지난 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② '눈'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고 있다.  
③ 1~5연이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에 해당한다.  
⑤ (가)에서는 '산수유 열매'가 (나)에서는 '바다(파도)'가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21 시구의 이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라고 생각했다가 '아니, 아니'라고 그 생각을 부정하며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했으므로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처럼 화자가 흔히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며 그 사실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의 '메아리가 되어'는 화자의 말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④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확인한 화자의 낙담과 절망이 나타나 있다. 배신감과는 무관하다.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는 화자의 체념적 정서가 나타나 있다.

### 22 이해와 감상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킨다. 하지만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그 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남겨두겠다는 화자의 뜻이 나타나 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화자는 당신이 계실 곳을 남겨두려 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부재’를 확인하려 들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3~27] (예술)**

**23 의도의 추론**

넷째 단락에서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단락에서 세잔은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스타인의 초상에서 피카소는 스타인의 외관, 외양보다는 그녀를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주목했고 그것을 재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묘사하려 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나 인상주의자들이었다.

**24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

둘째 단락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고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셋째 단락에서 세잔의 그림은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가)의 인상주의 모네의 그림과는 달리 (나)의 세잔의 그림은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는 뚜렷한 윤곽선을 볼 수 없다.  
 ②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④ (가)는 맞지만 (다)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⑤ (나)와 (다)에는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25 관점의 적용**

곰브리치와 굿맨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상주의자들이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통해 추구했던 사실성이라는 것도 결국 객관적 사실성이 아니라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6 근거 찾기**

⑤에서 ‘사전 지식으로 인해’ 연필 자국이 나무로 보인다고 했으므로 ⑤는 ㉠의 내용인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에 부합되고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하겠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④는 관습과 문화, 지식과 같은 후천적 요소가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7 어휘의 문맥적 이해**

⑤ 획득(獲得) : [명사]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

- 오답 피하기** >> ① 습득(習得) : [명사]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② 체득(體得) : [명사]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③ 취득(取得) : [명사]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④ 터득(摠得) : [명사]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

**[28~31] (현대 소설) 임철우, '눈이 오면'**

**【작품 해설】**  
 주 제 : 산업화 시대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줄거리 :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고향이 꼬두메로 가자고 아들(찬우)을 조른다. 아들이 결국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꼬두메로 향한다. 기차 안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아들은 과거의 꼬두메를 회상한다. 꼬두메에 도착했으나 마을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다.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어머니가 사라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해 제 : 이 소설은 탐색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 둘째 아들 가족과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살게 된 어머니는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되고 이미 죽은 남편과 큰아들을 찾아 고향 마을로 돌아가자고 둘째 아들을 조른다. 결국 고향 마을을 찾아가나 고향은 물론 남편의 무덤조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작품은 병약한 노인을 통해 산업화 시대 현대인의 고향 상실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28 서술상 특징**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이란 서술자가 등장인물 중 특정인을 주목하여 그 특정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정 인물의 시각'과 '소설의 서술 시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등 모든 시점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군' 식의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 오답 피하기** >> ① 제시문의 첫 부분을 보면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꼬두메로 내려가는 내용에서 시작하여 그날 오후의 일을 회상하는 식의 역순행적 구성이 보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옳지 않다.  
 ③ 종락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실종에 대한 주인공의 심적 동요와 주관적 사고가 돋보이므로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제시문에 대화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제시문의 중심인물은 주인공 찬우와 그의 어머니인데 둘 사이에 대결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29 배경 지식을 이용한 추론**

주인공 찬우는 어머니와 함께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며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했음을, 동시에 많이 허약해져 있음을 깨닫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그가 방황하는 장면이나 꼬두메라는 고향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장면 등을 통해 주인공이 즉흥적이며 낙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그가 회사에 사표를 쓰는 장면을 통해 지금까지 '그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머니의 실종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사표를 제출하고 방안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워대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0 내용의 이해

중략 바로 다음 단락을 보면 '그가 꼬두메에서의 삶을 회상하는데 '그 가난한 식구들'이란 표현이 나오므로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중략 다음 단락 끝에 '어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 모른다'라는 부분을 통해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여 있음을 볼 수 있다.
- ② 제시문에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제시문에서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제시문에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31 문맥상 단어의 의미

㉠의 햇별은 어머니의 그늘로부터 나온 그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므로 '세상의 따뜻한 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 공백 기간은 '그가 신문사를 나온 후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직 기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변함없는 그늘'은 어머니의 '그'에 대한 사랑과 보호라 할 수 있다.
- ④ '기적'은 방황하는 '그'를 붙들어 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
- ⑤ '절망의 심연'은 '그가 겪는 심적 고통을 의미하므로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이라 볼 수 있다.

### [32~35] (사회)

#### 32 논지 전개 방식

제시문은 유명인이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근거를 들어가며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 33 글의 세부적 이해

제시문 둘째 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모델 B는 친근성과 매력성이 높으므로 여행 광고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치약 광고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① 모델 A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으므로 자체의 성능이 중요한 카메라 광고에 적합하며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제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한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할 경우 광고 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매력성과 친근성이 중요하므로 모델 B가 더 적합하다.
-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모델 A가 더 적합하다.

### 34 비판적 읽기 - 반론의 근거

제시문의 핵심 주장은 유명인이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할 경우 광고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예를 드는 것이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유명인이 등장한 광고가 자주 광고될수록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의 광고 효과가 커진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35 단어의 문맥적 의미

①의 '나오다'는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의 의미로 ㉠과 같은 뜻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의 의미이다.  
③ '어떠한 물건이 발견되다'의 의미이다.  
④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의 의미이다.  
⑤ '『...에서』 속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다'의 의미이다.

### [36~38] (기술)

#### 36 세부 정보의 확인

주어진 제시문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엔진 동력 생산'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첫째 단락에서는 자동차의 연비와 엔진 동력의 발생 조건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엔진의 동력 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셋째 단락에서는 동력 발생 주 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에 따라 연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동차 연비가 실제 환경에서의 연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둘째 단락에서 엔진의 동력은 폭발 행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②는 배기 행정에서 동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단락의 설명 내용에 근거하면, 흡기 행정과 압축 행정에서 피스톤의 왕복이 이루어지고 폭발 행정과 배기 행정에서 또 한 번의 피스톤 왕복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둘째 단락의 흡기 행정과 폭발 행정, 배기 행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⑤는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7 시각 자료에의 적용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이해하고 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에서 피스톤의 이동 방향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고 하였으므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는 흡기 행정을, ㉣는 폭발 행정을, ㉤와 ㉥는 배기 행정을 나타낸다.

#### 38 사례에의 적용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와 제시문의 정보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설명에 따르면 실린더 내부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결정되고 이 공기와 혼합되는 연료의 혼합비에 따라 연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해수면 인접 지역에 적합하도록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가 고원 지역에서 운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이 낮으므로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고 혼합 기체의 연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적정 혼합비보다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적절한 혼합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효율이 떨어진다.  
 ③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연료의 비율이 낮을 경우 발생한다.  
 ⑤ 적절한 혼합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출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9~43] (장르 복합)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나) 허전, '고공가' (다) 이육, '어부(魚賦)'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작품 해제】**

지은이 : 미상  
 갈 래 : 사설시조, 풍자시(諷刺詩)  
 표 현 : 대조, 의인, 상징법  
 성 격 : 풍자적, 희화적(戲畫的), 우화적(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주 제 : 관리 혹은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태 풍자  
 특 징 :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화적으로 비판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서민적인 일상어를 구사함.

(나) 허전, '고공가'

**【작품 해제】**

지은이 : 허전(許俊)  
 연 대 : 조선 선조 때(임진왜란 직후)  
 갈 래 : 가사(잡가)  
 성 격 : 교훈적, 계도적, 경세적(警世的), 비판적, 우의적  
 주 제 : 임진왜란(壬辰倭亂) 직후 관리들의 나태하고 파당적 행위를 하는 이기적인 관리들의 정치적 행태 비판

**【줄거리】**

시적 화자가 비오는 날 새끼를 꼬는 사이에 머슴(고공)들을 꾸짖고 경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처음에 조부모가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 집과 나라를 세울 때, 고공들은 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일꾼들이었는데, 요즘 고공들은 밥사발(이권)의 크고 작음과 옷의 좋고 나쁜 것이나 서로 다투는 뿐이지, 강도가 쳐들어와 집안의 재산을 죄다 망쳐 놓았는데도 합심협력하여 도둑을 막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을 생각은 않고 옷 밥만 다투고 있다고 개탄하다 보니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다는 것이다.

(다) 이옥, '어부(魚賦)'

【작품 해제】

지은이 : 이옥

제 재 : 물고기들의 생태

주 제 : 물고기들의 생태를 통해 본 군주의 도리

【해 설】

국가의 상황을 물의 상황에 빗대어 군주의 도리를 말한 글이다. 군주와 여러 신하들, 서리나 아전의 무리, 백성을 용(군주)를 비롯한 여러 크기의 물고기들에 비유하여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므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역설하고 있다.

39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굴면서 강한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두터비의 모습을 통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나)는 머슴을 내세워 당시 국록을 먹는 신하들의 부패상을 우의적(寓意的)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는 물고기들의 관계를 통해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나)에서 옛그제 화강도가 들어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대목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해당되는 작품이 없다.
- ④ (나)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머슴들에게 권고하는 강한 어조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파리를 물고 있던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시어의 문맥적 의미

(다)에서 '비'는 용(군주)이 물고기(백성)을 위해 내려 주는 것이므로 '임금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를 (나)에서 찾으면 주인(임금)이 머슴(신하)에게 먹이는 죽조반(은혜)에 대응이 된다. ㉠의 '옴'은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의 '백미'는 성실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의 '살림'은 나라의 일을, ㉣의 '새끼'는 주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노력을 의미한다.

41 시어의 관계 파악

(가)에서 '두터비'는 부패한 양반이나 지방 관리들,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중앙 관리나 외세를 각각 상징한다. 즉 힘의 우열 관계로 약자-강자-더 큰 강자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⑤이다. 솔개=두터비, 쥐=파리, 봉황=백송골에 각각 대응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닭'과 '개'는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를, '꿩'은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 자체를 의미한다.
- ② '까마귀'와 '백로'는 서로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대상들이고 '너'는 백로를 지칭한다.
- ③ '나비'와 '범나비'는 화자가 함께하고자 하는 자연물이고, '꽃'은 지향하는 자연을 의미한다.
- ④ '봉황'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오작'은 꺼리는 대상, '동자'는 화자가 꺼리는 대상을 쫓아내어 화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 42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보기〉는 ‘고공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창작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의 상황이 비유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다 하더라도 제시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왜곡하면 안 된다. ②에서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시문을 보면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고공’들의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고공’들의 반목과 질시(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샘하는 듯)를 비판하였고, 왜적들에 대한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으며(엣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고 있으며(생각 있는 새 일꾼을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비판하고 있다.(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 43 글의 논지 파악하기

⑤ 글쓴이는 군주가 해야 할 일로 제시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우선 그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군주)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②, ③ 고래나 교룡, 악어(조정의 대신)와 문절망둑, 쏘가리, 가물치(지방 관리) 등이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④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은 군주 노릇을 할 수 없고, 큰 물고기들이 으스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44 세부 정보의 확인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③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다.

## 4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원리를 알파벳에 적용하면 ‘해당 알파벳음’ 뒤에 ‘알파벳’을 적어야 한다(②, ⑤). 이 중 ⑤는 ‘알파벳은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보기〉의 유의 사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답은 ②다. ②는 해당 알파벳음(‘런던’) 뒤에 알파벳(‘London’)을 적는 방식이면서 음절 단위로 끊어 적지 않고 있다.

## 46 내용의 추론적 이해

발문의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가 ㉠임을 알 수 있다. ㉠의 사례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우리나라에서 받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음)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보기〉의 주장 또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처럼 외래어를 표기할 때 실제음을 반영하여 국어에는 없는 부가적인 기호를 만들어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을 참고할 때,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결과는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가 적절하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47~5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낙성비룡'

**【작품 해제】**

이 소설은 어려서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모가 구원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파란만장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줄거리나 주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영웅 소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은 없지만, 섬세한 인물 성격 묘사와 순우리말 표현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이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나거나, 주인공이 '잠꾸러기'에다 '떡보'로 나타나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소대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인공의 뛰어난 성품과 스스로의 학업에의 정진 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낙성비룡'에는 실리와 기회를 좇으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나온다. 주인공 이경모는 미련할 정도로 참을성을 가진 사람으로, 과거와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야 아닌 '진짜 공부'를 즐길 줄 안다. 우정과 사랑, 기본적인 예의를 중시한 그는 아등바등 실리만 좇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전체 줄거리】**

명나라 정통연간(正統年間) 북경 유화촌에 이주현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부인 오씨가 어느 날 큰 별이 방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경모(아명 경작)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유모의 손에 자라다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며 떠돌아다닌다. 그러다 퇴임 재상 양승상의 눈에 띄어 의탁하게 된다. 그러나 승상이 죽자 승상의 부인인 한씨로부터 심한 박대를 당하게 된다. 이를 견디지 못한 그는 양승상 맥을 나와 청운사로 들어간 후 학업을 닦아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마침 번왕이 모반하여 쳐들어오자 그는 원수가 되어 이를 평정하고 평원왕에 봉해져서 양승상의 딸과 해로하게 된다.

**47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작품에서 '경모'는 '설인수'의 동서이다. 설인수는 자신이 모시는 상관이 13년 전 소식이 끊긴 동서임을 모르고 있다가 경모가 신분을 밝혔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인수와 경모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눈다. 특히 인수는 처를 남겨 두고 10년 넘게 소식을 끊은 경작을 조롱하듯 말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매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처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모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어 넘긴다. 이처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지위를 잊고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부분적으로 인물의 대화에서 설의적 표현('형이 비록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비록 농담이어도 어이 큰 말에 농담을 하리오?' 등)은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독백은 나타나지 않고,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는 부분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심리 묘사보다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심리와 정황을 보여 주고 있다.

#### 48 구체적 사실 확인

마지막 문장(‘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에서 ㉠을, 후반부 태수의 대화(“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과 ㉣은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49 말하기 양상에 대한 이해

처형이 평안하다는 원수의 질문에 태수는 자신은 비록 원수보다 지위가 낮지만 조강지처를 곁에 두고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 반해, 원수(경모)는 높은 벼슬에 이르렀으면서도 예전에 버렸던 아내를 찾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의 무심함을 비꼬고 있다. 따라서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은 [A]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③, ④ 원수(경모)의 처는 설인수에게는 처제로, 설인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병든 처제를 염려하며 손윗사람으로서 동서인 경작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50 상황에 적합한 한자 성어의 이해

설 태수는 십일 년 전 술하게 잠을 자고 둔하게 많이 먹던 경모가 현재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이라는 상황에 놀란다. 이에 적합한 한자 성어는 ‘환골탈태’인데,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여 전혀 판사람처럼 됨’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수구초심(首丘初心) :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⑤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